

낭만항구 목포 3일간 음악으로 물들다

23~25일 ‘목포 뮤직플레이’

공연·댄스 경연, 전시·체험 부스
음식점·숙박업소 점검 준비 만전

목포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목포 뮤직플레이’의 성공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2025 목포 뮤직플레이는 ‘목포, 음악이 되다’를 주제로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K-pop 공연, 음악·댄스 경연, 전시·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23일 오후 7시에 열릴 개막식 공

연을 시작으로 목포가 음악으로 물드는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된다.

이에 발맞춰 목포시는 ▲행사장 환경정비 ▲먹깨비 할인 이벤트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방역소독 등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2일까지 행사장 주변에 집중 환경정비를 한다.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먹거리 및 푸드트럭 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지원하는 등 깨끗한 행사장을 조성 중이다. 행사 기간에는 청소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청결 유지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시는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한 5000원 할인쿠폰 이벤트를 600명 규모로 운영, 방문객

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 대비해 25일까지 지역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행사장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 30개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행사장 일대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사전 방역소독과 현장 대응을 병행하며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뮤직플레이는 단순한 음악축제를 넘어 목포의 문화와 매력을 전국에 알릴 기회”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군 보건소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영양 한 스푼, 청춘 두 스푼’ 건강교실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신안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영양 한 스푼, 청춘 두 스푼’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신안군은 지역 14개 읍·면의 94개 경로당에서 1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실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보건소 전담 영양사가 직접 운영하며, 고령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청춘 건강교실’과 연계되어 신체활동과 식생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고령 어르신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이 만성질환 예방과 기초체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생활터 중심의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로 취·창업 생태계 키운다

장비 활용 교육·프로그램 강화

무안군이 무안을 복합문화센터에 자리한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와 남악신도시의 ‘MNU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취·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창작해 물건이나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무안군은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며 지역 내 창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 제조 인재 양성과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일반 주민과 예비 창업자들이 메이커스페이스를 보다 더욱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활용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밀터 성형기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춘 무안군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초·중학생 대상의 기초 제작 체험부터 창업 준비자를 위한 실무 중심 전문 과정까지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산(가운데) 무안군수가 복합문화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일반람을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무안군 제공>

김산 무안군수는 “메이커스페이스는 지역민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이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7년 연속 최우수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종합평가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을 획득했다.

해남군은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8기 공약이행 목표 달성도와 공약의 일치도, 주민소통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해남군은 민선 7기 공평·공정·공개의 군정 운영 방침에 이어 민선8기 해남형 ESG를 표방하며 청정환경(E)·안전사회(S)·신뢰행정(G) 구축에 주

력해 왔다.

민선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군정목표로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협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등 5대 방침, 15개 전략, 111개 공약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지난해 말까지 67개 공약을 완료했다.

공약의 충실한 실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군민평가단을 운영해 공약이행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높여 나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자원순환복합센터 조성, 생활불편해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추진, 고산유물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교육

재단 설립과 운영, 해남로컬푸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이다.

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청사진으로 ‘농어촌수도 해남’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민선 8기내 장기적 성장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수도 해남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공동체 해체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산업과 조화로운 공존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7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은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결실”이라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미래 발전 장기성장동력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수산공익직불금 최대 130만원 지급

소규모 어가...7월까지 신청

완도군이 소규모 어가에 13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물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등 2종) 지원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

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한다.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이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교통 안전 강화 협약

진도군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도서 지역 해양 교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해양 교통의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해양 교통정보 실시간 데이터 제공, 도서민 교통 편의성 제공, 모바일(진도군공공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여객선 운항 정보와 위치 제공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진도군공공앱에서 그동안 수동으로 제공해 온 여객선 운항 정보를 ‘에



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환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해양교통 데이터와 진도군공공앱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병(900,000ml)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를 받은 광고를 입니다.